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짊어지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짐 따위를 뭉뚱그려서 지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9세기	8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짊어지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짐 따위를 뭉뚱그려서 지다.

짊어지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짊어지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질머지다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짊어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질머지-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짊어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질머지다
  19세기20세기미상
- 짊어지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질머지-, 짊어지-

짊어지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짊어지다’의 옛말인 ‘질머지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질머지-’는 짐을 가뜬하게 꾸려서 지게나 수레 따위에 올려 얹다를 뜻하는 ‘짊-’과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것을 연철 표기한 ‘질머’와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지-’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질머지-’를 분철 표기한 ‘짊어지-’가 20세기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짊어지다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질머지-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질머지-

출처 1865 흥부전 단:12ㄱ

용례 01

문헌 용례

이놈 네게 종이 잇단 말가 어셔 질방 거러 다고 닉 지고 가마 그러ᄒᆞ면 그리 ᄒᆞ오 질방 거러 듀니 놀뷔 질머지고 가며 화초장을 싱각ᄒᆞ여

현대어 풀이

이놈, 네게 종이 있단 말이냐? 어서 질빵 걸어 다오. 내가 지고 가마. 그러하면 그리 하오. 질빵 걸어 주니 놀부가 짊어지고 가며 화초장을 생각하여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766

용례 02

문헌 용례

질머지다 [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9 제국신문 11월 29일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부샹이란 거시 물건을 질머지고 다니ᄂᆞᆫ 거신ᄃᆡ 지금 너의들은 ᄆᆡᄆᆡᄒᆞᄂᆞᆫ 물건도 업고 지고 다니ᄂᆞᆫ 것도 업ᄂᆞᆫ 일ᄀᆡ 롱민들이 부샹이 무엇시냐 ᄒᆞ고

현대어 풀이

부상이라는 것이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매매하는 물건도 없고 지고 다니는 것도 없는 일개 농민들이 부상이 무엇이냐 하고

20세기 질머지-, 짊어지-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질머지-, 짊어지-

출처 1908 현미경 180

용례 04

문헌 용례

한 톨 남기지를 안코 모다 질머져 가니

현대어 풀이

한 톨 남기지를 않고 모두 짊어지고 가니

출처 1911 목단화 83

용례 05

문헌 용례

길에 엇던 놈이 지고 가는 짐을 길셥에 버셔 노코 어듸를 간 틈에 짊어지고 와셔 본즉

현대어 풀이

길에 어떤 놈이 지고 가는 짐을 길섶에 벗어 놓고 어디를 간 틈에 짊어지고 와서 본즉

출처 1933 동아일보 11월 26일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짊어젓던 배랑을 끌러 한 손에 들고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동아일보 7월 3일 3면

용례 07

문헌 용례

처음 짊어젓든 짐보다는 두 갑절이나 더— 짊어진 채 간신히 간신히 길을 가지 안흐면 안 되엇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질머지-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질머지-

출처 미상 신약전서 8ㄴ

용례 08

문헌 용례

우리 연약ᄒᆞᆫ 거ᄉᆞᆯ 담당ᄒᆞ시고 우리 병을 질머지셧다

현대어 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짊어지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짊어지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負

뜻·음 질[荷] 부

총 9획 · 부수 貝





hanja.wordrow.kr/한자/負/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